

毛製品 깔개류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 - 아시아를 중심으로 -

尹 良 老

중부대학교 예술학부 패션디자인전공

A Study on the Function of Wool Matting

Yang-No Yoon

Division of Art, Major of Fashion Design, Joong Bu University

目 次

Abstract	1. 주술적 기능
I. 서론	2. 권력 및 계급표식 기능
II. 아시아의 문화적 배경	3. 소인표식 기능
III. 깔개의 역사	4. 실용적 기능
1. 서아시아의 깔개	5. 점서적 욕구표현 기능
2. 중앙아시아의 깔개	6. 문화교류의 단서제공 기능
3. 동아시아의 깔개	V. 결론
IV. 깔개의 기능	참고문헌

Abstract

Matting made of wools has a history which goes back even before B.C.7000, the time which is believed to be the starting point of the fabrication, production and usage of wools by the nomads in the Western and Central Asia who had made the living by breeding sheep.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function of wool matting in Asia. The research period limited to 9C A.D.

When classified by the method of production of wool matting, the pile method and felt method have been widely used by the nomads in Western Asia and the cattle breeding nomads in Central Asia consecutively.

From ancient times, wool matting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necessities by the nomads for living in the wilderness, and even at present, continued to be used by the people both for the purpose of everyday use and decoration.

Other than fore-mentioned purposes, wool matting have function that is expressed the incantation, authorization and hierarchy, emotion and desire,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nations. In addition, wool matting had also been used as a mark to show ownership and for military

purposes.

Even a simple wool matting had a different symbolism and function by different region and people throughout Asia. However, by finding and studying further about what wool matting had symbolized and how it had been used, the tradition and history of wool matting could continue to attract the interests which will make the tradition to continue. And also, in order for the tradition to continue, the utmost efforts to innovate and produce better quality and design wool matting to fulfil the needs of modern times are truly required.

I. 서론

역사적으로 제작기술은 한 시대의 기술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깔개는 일반적으로 바닥에 까는 것을 총칭하며 카펫(carpet·絨緞), 러그(rug)류가 이에 포함된다. 용단은 絨氈, 絨毯이라고도 하는데 한자의 字意에 〈絨〉은 毛織 혹은 毛絲물, 〈氈〉은 毛席을 의미한다¹⁾. 또한 「辭源」에 絨은 機織物之厚而溫子, 以絲或羊毛等爲之라 하고 氈은 通作絨, 毛席也·俗稱氈子라 하고 氈氈은 毛席也, 一名道德也, 一名多羅叛²⁾이라 하고 「後漢書」天竺國條에 天竺國有細布好氈毼이라 이들은 모두 모직의 깔개임을 나타내고 있다.

서양에서는 제작방법에 관계없이 carpet, rug라 하여 carpet은 주로 실내를 넓게 깔기 위한 것, rug는 작고 쉽게 이동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rug는 덮개를 의미하는 rag가 轉訛된 것으로 그다지 고급품이 아닌 일상적 깔개를 rug라 하기도 한다. 한편 서아시아의 깔개중 소위 knotted pile, 즉 짧은 毛絲를 경사에 맺어 파일을 준 것을 카펫트라 부르는 반면 編織기법으로 된 것은 킬림(kilim)³⁾이라 한다. 이상의 字意로 볼 때 모제품 깔개류는 양이나 산양을 사육했던 유목민족국가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농경과 양의 사육이 함께 이루어진 서아시아지역에서는 파일직의 깔개류가, 반면 목초지를 따라 이동생활을 하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산지 유목민족을 중심으로는 氈類 즉 펠트류의 깔개가 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깔개류의 발달을 제작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맨 처음 자연에서 얻어지는 동, 식물섬유 소재들을 자연 그대로 바닥에 깔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며, 다음 단계로는 동물의 毛皮를 무드질하거나, 나무의 皮를 두드려서 넓게 피는 tap의 방법이 있다. 다음 단계로는 獸皮를 압축시킨 펠트, 그 다음 단계로는 동식물의 섬유를 이용하여 편조하거나 직조한 본격적인 깔개로서의 氈氈이나 氈座, 織物로서의 絨緞類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발달은 지역에 따라 이들 과정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던 지역도 있을 것이다.

깔개의 사용목적은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생활하기 위한 것이며 깔개의 다양한 기능은 깔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깔개는 좌식생활을 주로 하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에서 시작·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보고에 의하면 棺 밑에 또는 屍身아래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깔개류가 깔려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이것 역시 좌식생활과 관련하여 死後世界의 생활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까지 용단류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어 왔다⁴⁾. 이들 연구들은 용단의 역사적 발전, 제작기법, 문양, 색채, 디자인의 개발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일본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고대 용단의 존재를 밝힌 연구는 매우 의의가 크다.

직물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깔개에 사용된 문양은 “하나의 언어”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래 깔개류의 발생은 현대생활에서와 같이 단순한 실용적, 장식적 목적외에 상징적

1) 小笠原小枝, 遊牧民の染織にみる織物の技法と歴史, 「中近東遊牧民の染織」, 東京:松崎美術館, 昭和60, p. 25.

2) 「辭源」上下冊, 毛部·絲部.

3) 小笠原小枝, 앞쪽, p.25.

4) 山邊知行, 「アジアの敷物」, 「中近東遊牧民の染織」, 東京:松崎美術館, 昭和60年, p.5.

의미를 지닌 기능을 갖고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갈개류가 지닌 상징적 기능에 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개류의 사용에 대한 역사와 기능성을 밝히는데 연구의의와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연구범위를 지역적 범위는 고래로부터 갈개류를 사용하였던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시대적 범위는 기원전부터 A.D.9세기 까지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모제품 갈개류를 대상으로 문헌과 출토 유물관련 사진 자료를 분석, 고찰하였다.

II. 아시아의 문화적 배경

아시아의 지역구분은 학자간의 차이가 있으나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볼 때,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아시아, 그리고 북·중앙아시아에서 서남아시아로 연결되는 지역⁵⁾ 등 세 지역으로 대별할 수 있다.

서아시아는 이란고원, 아나톨리아고원,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유역, 아라비아에서 지중해를 잇는 여러 지역이 포함되며 그 範圍는 셈어족, 인도·유럽어족의 활약무대이며 이 지역의 여러 민족이 남겨 놓은 遺跡, 遺物은 실로 다양하다⁶⁾ 특히 메소포타미아문명이 발생했던 이 지역은 일찍

이 羊毛을 방직하여 의복의 재료로 사용했을 뿐 아니라 파일직 絨絨과 펠트(felt)갈개류가 사용된 지역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고고학적 자료는 헬레니즘시대로 추정되는 이락의 누지(Nuzi)유적과 팔레스티나의 사마리아(Samaria)유적에서 출토된 약 30cm의 羊毛를 깎을 때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가위를 들 수 있다⁸⁾. 이것은 고대 이 지역에서 이미 양모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이 다량 생산되었음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중앙아시아는 중앙아시아(Central Asia)와 내륙아시아(Inner Asia)로 구분한다. 중앙아시아는 오늘날의 이란 북방, 우즈벡, 카작, 아제르바이잔, 키르키즈 등 소련의 중앙아시아 영토를 의미하고, 내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초원시대, 동부유럽으로부터 만주에 이르는 과거 유목민들의 활동, 거주하던 지역을 의미한다⁹⁾. 한편 이 지역은 고래로부터 西域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직조의 起源年代는 B.C.4000년 경으로 추정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투르키스탄의 아나우(Anau)유적에서 발견된 동물의 사육과 방추차를 이용한 방직과 방직이 이루어졌다¹⁰⁾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과 남우즈베키스탄의 B.C.2000년으로 추정되는 사파리테페(Sapalli-tepe)무덤에서 발견된 毛織殘片과 갈개류¹¹⁾를 들 수 있다.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아시아지역의 대

- 5) 강숙원, "터키 카페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미라, "Rug디자인에 관한 연구 -Area Rug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김상남, "중국 용단의 역사적 고찰",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김영란, "한국 자수적 카페트 文樣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김혜연, "Rug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민길자, "韓國傳統 纖維製品의 發掘 I -毛製品(carpet, rug)을 中心으로-", 『服飾』, 한국복식학회지, No.18, 1992.
- 서미경, "페르시아와 中國 絨緞의 比較 研究-近世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심옥섭, "콘트랙트 카펫디자인에 대한 연구-전통문양 개발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남미, "페르시아 사파리絨 용단문양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이복선, "한국적 문양을 살린 Carpet-작품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이인경, "투르크만 카페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조유미, "한국 현대 카페트 문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한은혜, "상징성을 중심으로 본 중국 용단의 문양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6) 編輯部 編譯, 『東洋史의 基礎知識』, 서울:신서원, 1991, p.14
- 7) 江上波夫, 增田精一, "西アシア", 『世界考古學事典』下, 東京:平凡社, 1979, p.1353.
- 8) 江上波夫, 增田精一, 위의 책, p.1372.
- 9) 曠觀 譯著, 宋基中(譯), 『遊牧民族帝國史』, 서울:民音社, 1984, p.13.
- 10)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攷』古代編, 東京:文化出版局, 昭和 54年, pp.374-375.
- 11) Askarov A.A., "Southern Uzbekistan in Second Millennium B.C.", 『The Bronze Age Civilization of Central Asia』, New York:Armonk, 1991, p.265.

표적 유적인 노인우라(Noın Ula) 大墓에서는 다수의 자수품과 모직물, 동물문양의 絨毯 및 펠트제 안장덮개가 출토되었고 파지릭(Pazyryk) 무덤군에서는 파일직 카펫뿐 아니라 다수의 펠트제 깔개류가 출토¹²⁾ 된 바 있다. 특히 펠트품의 출토수는 다른 지역보다 많다. 이는 定住하지 않고 목초를 따라 유목을 주로 하는 그들 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즉 정주하는 생활에서는 적기에 의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나 이동생활에서는 짧은 시간에 제작할 수 있는 펠트제품이 선호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아시아는 만주,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앤더슨(Anderson, J.G.)에 의해 1921년 北京南西部에 있는 周口店 猿人洞窟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仰韶문화유적지 발굴과 우리나라의 공주 구석기 유적조사를 통해 방추차의 발견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구석기시대에 직조가 이루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의 민족은 우랄·알타이어계에 속하는 조선족, 일본족, 만주족, 몽고족이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몽고를 대표하는 유목어종과 만주의 유목어종, 농경토착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의 농경정착 생활이 행해지던 지역이므로 이들 생활환경에서 비롯된 유목지역의 펠트와 농경정착의 직조된 깔개류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깔개류의 역사

1. 서아시아의 깔개

고대 수메인과 아카드인들이 남겨놓은 설형문자가 새겨진 수천개의 점토판에서 현재 직물과 관계되는 100여개의 글자가 판독되었는데 대부분 모직물 의복에 관계되는 것들과 그외에 바닥 깔개 특히 카펫에 관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직물의 걸면을 빗질하고, 보풀은 자르지 말며, 이전에 보낸 것과 비교하여 두께가 얇도록 유지해라. 만약 털이 많으면 kutanum처럼 보풀두께가 얇도록 하고 그래도 여전히 털이 많으면 kutanum처럼 보풀을 잘라내라”¹³⁾ 등과 같이 질적 차등이 있었음은 물론 질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 또한 주문거래에 따른 제품의 내용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파일카펫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kasiru(knotter의 의미)와 kamidu¹⁴⁾라는 아카디아 단어가 규명되었다.

또한 이라크의 At-tar 동굴군에서 출토된 4000여점의 직물잔편들은 C-14조사와 직물에 사용된 문양등으로 보아 AD 1-4세기로 추정되는 것인데 그중 90%정도가 모직물이며 특히 평직과 파일직의 문양적으로 된 직물 잔편이다. 특히 40여개의 rug조각들은 대부분 페르시아와 터키식 매듭에 의한 것이고 파일을 그대로 길게 둔 것, 파일을 자른 것등이 있다. 파일사의 꼬임은 거의 대부분이 ‘Z’ 꼬임¹⁵⁾이다.

이란, 터키 아프카니스탄 및 아랍제국과 시리아, 이집트 등 근동지역과 실크로드에 인접한 아시아 북방권의 나라들은 地勢가 대부분 사막·초원지대이며 고온건조하고 겨울철에는 한기가 심하고 목축에 의존하여 羊, 山羊을 주로한 깔개류가 제직·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 지역은 古代絨織의 主産地를 이루었다. 이들 지역에서 옛부터 생산되는 깔개류는 제작기법상 파일이 없는 카펫(flat-woven carpet)과 파일카펫(knotted carpet)¹⁶⁾로 대별되는데 파일이 없는 카펫은 비교적 제작기간이 짧아 항시 주거를 이동하는 유목국가에서 일찍부터 발달하였고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란, 터키, 우즈베크, 투르크스탄, 코카서스, 투르크멘 등의 각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들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깔개

12) 加藤晋平, “北アジアⅡ(シベリア)”, 『世界考古學事典』下, 東京:平凡社, 1979, p.1305.

13) Murray Eiland, Evidence for pile Capets in Cuneiform Sources and A Note on the Pazyryk Carpet, 『Oriental Carpet and Textile Studies』, Vol. 4., OCTS Ltd, 1993, p.9

14) Stronach David, “Patterns of Prestige in the Pazyryk Carpet: Notes on the Representational role of Textiles in the First Millennium B.C.”, 『Oriental Carpet and Textile』, Vol. 4. OCTS Ltd, 1993, p.20.

15) Fujii Hideo, Kazuko Sakamoto, “The Marked Characteristics of the Textiles, Unearthed From the At-tar Caves, Iraq”, 『Oriental Carpet and Textiles Studies』, Vol.4 OCTS Ltd, 1993, pp.35-39.

16) 山邊知行, 『アジアの敷物』, 『中近東遊牧民の染織』, 松籬美術館, 昭和 60, p.11.

류는 제직기술적 측면보다는 각지역의 특색있는 전통적인 문양과 색에 의해 산지를 구별할 수 있다.

2. 중앙아시아의 깔개

1900년 헤던의 제2회에 걸친 중앙아시아 탐험은 누란유적의 발굴뿐 아니라 모직물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특히 유적에서 발굴된 모제품들과 카로슈티(kharosthi)문서, 漢文書, 티벳문서 등에는 이 지역에서의 실제 생활을 알리는 기록 외에 漢나라 병사들의 장비목록과 모직물, 모직깔개 등이 通貨의 수단뿐 아니라 稅로도 징수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헤던문서 Conrady No.22에는 한나라 병사의 지참물중 깔개로 사용되었다고 짐작되는 靑旃一領이, 스타인 문서 Chavannes No.804에는 漢병사 胡騰寧이 비단 3필로 넓이 4尺6寸, 길이 1丈1尺의 모직물과 황색의 旃襜(上衣)를 샀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靑旃, 黃旃은 모두 펠트재라 생각되며 특히 靑旃은 그 크기로 보아 역시 깔개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카로슈티문서 No.579에서는 모가타(Mogata)가 람소샤(Ramsotsa)에게 種子 1밀리마 10키를 판 대가로 價12의 카페트 13疋(8尺/1疋)을 받았다는 기록과 K.I.문서 No.581에서는 7avacira토지의 대가로 6疋의 카페트와 카바지(毛氈)1, 양 2마리, 곡물 1밀리마를 지불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외에도 K.I.No.590에도 여자 노비를 매매하면서 12疋의 카페트1매와 11疋의 카페트 1매 외에 브라라 낙타(價40) 1마리와 아무구라 낙타(價30) 1마리, 8스토라 물리(muli)를 주었다¹⁷⁾는 기록 등으로 보아 카페트의 크기는 1疋을 기본으로 해서 크기가 클수록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니아유적에서 발굴된 카로슈티 문서에는 호탄(和田, 于闐)의 絨毯에 대한 가치를 기록하고 있

는데 第549호 木簡에 1밀리마10치의 토지와 호탄 地毯 한장 값이 같다¹⁸⁾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호탄에서 사육되는 양의 털은 섬유장이 길고 탄력성이 좋고, 촉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우수하며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綿 역시 섬유가 길고 광택이 풍부하므로 경사와 지사로 면사를 이용하고 위사로써는 질 좋은 양모를 이용해 터어키식 매듭과 페르시아식 매듭으로 용단을 짜기도 한다. 누란은 니아에 라야(raya)를 설치해 놓고 동행세로 기(ghee)라는 버터와 함께 니아의 질 좋은 모직 깔개류를 세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들 지역의 고급 모제품들을 증명하는 실물자료들은 출토 유물보고자료를 통해 이미 학계에 알려진 바¹⁹⁾ 있다.

3. 동아시아의 깔개

중국에서 깔개류 사용에 대한 근거는 近南古畫 像墓의 中室南壁에 그려진 그림에서 創頤과 함께 있는 사람이 모두 獸皮 방석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부터 깔개류의 사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周代에는 鋪席의 多少는 존비의 구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²⁰⁾. 漢代에도 바닥에 席을 깔고 앉는 풍습을 그대로 따랐으며 겨울에는 席의 가장자리에 錦鬪를 덧부치기도 하였다. 魏의 明帝가 景初2년에 倭여왕에게 사여했던 물품 중에는 絳地 縹栗 10장과 細班華 5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붉은색 바탕의 파일직 깔개라 생각된다²¹⁾. 그러나 周의 武王때 布를 화폐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布의 廣2尺2寸, 幅長 4丈을 비롯하여 중국의 絲帛에 대해 기록²²⁾ 하고 있으나 모직물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서는 褐을 제외한 모직물 깔개류는 북방夷族 혹은 西方諸國으로부터 공물로 받아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AD6~7세기경 중국에서 絹縷이 성행하면서 kilim기법이 도입되어 직조상

17) 小笠原小枝, 앞책, pp.81-83.

18) 杉山徳太郎, 「維吾爾絨毯文様考」, 東京: 原流社, 平成 3, p.33.

19) 「樓蘭王國と悠久の美女」, 東京: 朝日新聞社, 1992.

長澤和俊, 「樓蘭王國」, 東京: 第三文明社, 1976

, 「누란왕국의織物について」, 「服裝文化」, No.150, 東京: 服裝文化協, 1976.

박경자, 「누란고국의 복식」, 충남대학교 93삼포자음, 1993.

20)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民國75, p.66.

21) 角山幸洋, シルクロドの染織, 「服裝文化」Apr. No. 150, 東京: 文化出版局, 1976, p.100.

22) 「冊府元龜」, 卷504, 邦計部 絲帛條.

특징에 의해 通經斷緯로 표현하기도 하며 宋代 이후에는 絨絲, 絨絲, 絨絲로 불려지면서 실크카펫트가 제직되었는데 이는 唐代에 서역문물과의 교류 및 당대 長安에 서역인들이 장기기저하게 되면서 중국은 그들로부터 제직기술을 익혀 실크사를 이용한 고급의 카펫트를 제작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깔개류의 사용은 수산리, 각 저층 등 고구려 고분벽화 중에 귀족의 실내생활 모습에서 볼 수 있으며, 「三國史記」卷33 雜志 第2 色服, 車騎, 用器, 屋舍條에 계급에 따른 깔개류 사용에 대한 기록이 있고, 「三國遺事」卷3 四佛山 獅佛山 萬佛山條에 五色氍毹에 대한 기록을 보면 「新羅의 巧는 가히 天造이며 人巧가 아니다」²³⁾라고 唐태종이 감탄할 정도로 삼국시대에 이미 섬세한 문양식의 깔개류가 제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로는 울마이야 왕조(661~750AD)의 박해를 피해 일부 알라위족들이 신라에 도피 망명한 사실이 알 마끄리지, 아불 피다, 까주위니 등 다수의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바 있어²⁴⁾ 이로 볼 때 신라에 거주하는 이슬람인들은 그들이 가져온 카펫트 및 제직기술을 생활수단으로 이용했었음을 짐작케 한다. 신라시대 깔개의 실제 유물은 日本 正倉院 遺物 所藏品중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유물 중에는 新羅에서 제작되었음을 알리는 다수의 花氍類가 소장되어 있으며 삼국시대 깔개류의 제직기술과 문양, 염색 등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삼국시대 모직물 및 모직깔개류는 귀족 및 왕실에서의 사용을 위한 것과 국의

조공품으로 보내기 위해 官下에 毛典과 席典²⁵⁾을 각각 두고 직접 관리하였으므로 품질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모직물 깔개류는 지역적으로는 양의 사육 여부와 깊이 관계하므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모제품 깔개류의 제작기술 정도 및 특히 주거환경, 생활방식, 상업적 교역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깔개류의 기능성

1. 呪術的 기능

깔개류에서 보이는 많은 문양들은 아름다움의 표현수단 외에 주술적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삼각형과 사각형(菱形)문양은 邪惡한 蠱이나 不正을 없애는 주술적 성격을 띠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삼각형의 문양은 여성의 생식기²⁶⁾를 표현하며 따라서 다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카펫트로 알려진 파지릭 출토 카펫트(1949년 파지릭 5호분, Rudenkok에 의해 발굴)는 크기 200×183cm로 터어키식 매듭으로 밀도 3600knots/sqdm의 매우 정교한 깔개인데(그림 1)중앙부분에는 4잎모양으로 표현된 24개의 장방형을 중심으로 5줄의 서로 다른 굵기의 테두리로 둘러 싸여 있다. 중앙으로부터 첫 번째 줄은 띠에는 griffin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다음 띠에는 풀을 뜯는 숫사슴이 다음 띠에는 4잎 문양이 표현되어 있다. 그다음 네 번째 띠에는 위

<표 1> 지역에 따른 깔개류의 기능

지 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기능	실용적 기능 주술적 기능 권력 및 계급표식 기능 문화교류 단서제공 기능	실용적 기능 주술적 기능 정서적 욕구표현 기능 소인표식 기능 문화교류 단서제공 기능	실용적 기능 주술적 기능 권력 및 계급표식 기능 문화교류 단서제공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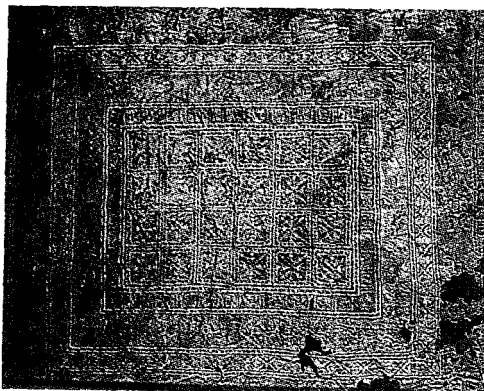
23) 齊藤 忠, 孫大俊(譯), 「古代韓國文化와 日本」,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1, pp.144-145.

24) 윤양노, 古代 毛織物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95.

25) 「三國史記」卷37, 雜志, 第六.

26) 加藤 定子, タジクの民族服 6, p.93.

풍당당한 숫말과 기마인이 표현되어 있고 마지막 띠에는 다시 griffin이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인 조화에서 보여지는 것은 대비와 조화뿐 아니라 각 태두리의 연속적인 동물문양의 모습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림 1>의 각 태두리에서 보이는 이러한 일련의 긴 행렬의 정확한 의미는 시각과 끝을 의미한다. 중앙부분의 4인문양은 아르메니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기원전부터 중세말까지 사용되어왔던 모티프로 빛을 상징하며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은 서남아시아 태생의 메소포타미아의 전형적인 흰 점있는 사슴임을 알 수 있어 이 파지릭출토의 깔개는 파지릭 지역에서 제작된 것이 아닌 아르메니아인들에 의해 제작되었다는 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²⁷⁾. 또한 이에 대해 Schurmann은 이 깔개는 스키타이의 수도 샤키(Sakis)에서 만들어졌으며 스키타이 王의 의뢰를 받아 아르메니아 수공업 작업장에서 제작되었는데 이는 이 카페트에 묘사된 문양 및 형식이 스키타이 형식보다는 페르세폴리스 궁전의 浮彫物에서의 말의 크기뿐 아니라 기마인의 쓰개 등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으며 분명한 것은 이 카페트 역시 그 당시의 카페트 태두리 장식이 그렇듯이 삶과 죽음에 대한 보호기능을 갖고 있다²⁸⁾고 생각된다.



<그림 1> Kotted-pile carpet
(『Scythian Art』, 圖199)

2. 權力 및 階級標識 기능

후기 앗시리아의 직물산업에 대한 활기와 창의력은 BC 9세기에서 BC 7세기의 앗시리아 궁전의 부조물과 북시리아의 Til Barsip에 있는 앗시리아 궁터에서 발견된 벽화에 잘 묘사되어 있다. 이 벽화는 Tiglath Pile III(BC 744~727)의 통치를 나타내주는 것으로서 왕은 로제트와 동물로 장식된 로브를 입고 있다. 앗시리아에서는 BC 6세기 이후에는 사각형안에 로제트를 중앙에 배치하고 외부에는 4개의 태두리가 있는 새로운 형식의 문양구성이 황제를 위한 카페트나 벽걸이 궁전의 돌 문지방 등에 표현되었는데 이들 문양 및 구성양식은 왕권의 권력강화와 보호적 특성을 지닌다²⁹⁾.

특히 BC 6세기 바빌로니아의 많은 왕족직물에는 중앙부분에 로제트문양의 태두리와 4인문양뿐 아니라 獅子列무늬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직물에 이러한 동물적 표현은 적어도 Darius I(BC 522~486) 이후부터 사자의 형상은 아케메네스朝 왕권의 영원한 정표로 사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2)

이러한 문양들의 최고 절정은 앞서 언급한 파지릭5호분에서 출토된 카페트라 할 수 있는데 앗시리아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카페트나 궁전 돌 문지방에서는 4개 이상의 태두리 장식이 결코 없는 반면 스키타이왕의 요청에 의해 앗시리아에서 제작한 파지릭출토의 카페트에는 5개의 선태두리 장식이 디자인 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

다시 말해서 옷을 입은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표현하기 위한 의복의 선장식에 대한 고대로부터의 중시는 카페트의 태두리 선장식에 연결됨으로써 강조되었고 특히 아케메네스조 시대의 카페트는 왕권의 상징을 위해 王座 밑에 깔았으며 왕의 의자와 발받침부분은 통일되게 장식하여 중앙부분안에 놓여지며 왕의 옷자락 선장식은 중앙부분으로부터 카페트의 첫째 태두리에 놓여져 왕의 神的 위상을 고조시켰던 것이다(그림 3,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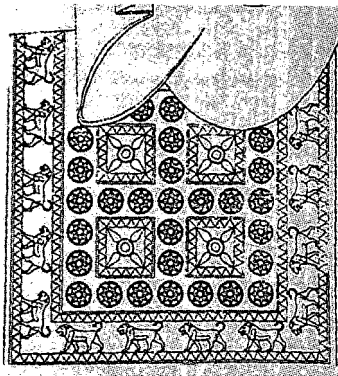
27) Stronach David, *op. cit.*, p.30.

28) Gantzhorn Volkmar, 『The Oriental Carpet』, Germany: Benedikt Taschen, 1991, p.49.

29) Stronach David, *op. cit.*, pp.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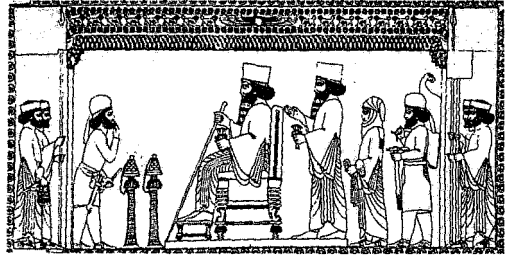


<그림 2> 바빌로니아 Xerxes 의복의 襪 장식
(『Oriental Carpet and Textile Studies』, Vol. 4, p.29)



<그림 3> 깔개의 가장자리 장식에 연결된 왕의 옷자락
(『Oriental Carpet and Textiles Studies』, Vol. 4, p.25)

깔개류를 통한 신분계급의 표식은 동아시아지역에서도 고대로부터 행해졌는데 중국은 周代에 室內起居와 함께 실내에 席子를 깔고 그 위에



<그림 4> 사자, 로제트로 가장자리 장식된 깔개에 앉아 있는 왕
(『Oriental Carpet and Textiles Studies』, Vol. 4, p.25)

앉아 임무를 수행했으며 鋪席의 多少는 존비의 구별을 나타내었다. 즉 天子는 5겹, 諸侯는 3겹, 大夫는 2겹의 깔개를 깔았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三國史記」卷33 雜誌 第2 色服 車騎, 器用, 屋舍條에 車騎 駞子로 眞骨은 綾絹已下를 쓰되 二重에 불과하고 六頭品은 純絹已下를 쓰고 五頭品은 氈이나 거친 포를 쓰도록 하였으며 鞍座子에 있어서도 진골이하는 罽의 사용을 금하였고, 器用에 있어서 六頭品과 五頭品은 虎皮 毳氈을 금하고 四頭品이하 백성은 毳氈 虎皮 大唐 氈 등을 금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계급에 따라 깔개류의 중첩되는 개수 및 재료의 구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燒印 標識 기능

고대로부터 중근동지역에서 定住, 移動生活을 하던 유목민은 다케스탄, 쿠르트, 투르크멘, 박트리아, 파루치, 자트族 등 여러 유목민이 있는데 이들은 생활과 관련하여 특히 羊毛을 이용한 깔개류의 제작 및 사용이 일찍부터 이루어졌다. 그 재료가 獸毛라는 제한은 있지만 깔개나 벽걸이 등에 있어 각 종족의 차이는 각각의 특색있는 문양이나 색에 의해 구별되어 진다.

특히 문맹률이 높은 유목민 사회에서는 그들 가축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소인표식을 하였으며 이들 표식은 가축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제작된 깔개류의 문

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나토리아, 코카서스, 페르시아, 사르마타이, 투르크멘系 유목민들이 사용했던 투르크-몽골語로 “Tamghas”라고 하는 소인표식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적된 富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초기의 목적에서 封印 및 種族의 紋章으로서의 역할로 발전되고 샤머니즘과 관련하여 점차적으로 마귀를 쫓는 힘을 가진 崇拜의 상징, 盜賊이나 肉食動物로부터의 보호기능과 또한 이익의 재창출을 기원하는 적극적인 표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로 발전하였다. tamghas는 그들이 사용했던 모든 古器物에서 보여지며 넓은 지역에 걸쳐서 위의 종족들이 제작한 카펫에서도 볼 수 있다(그림 5).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지닌 tamgha는 이들 유목민의 깔개에서 대부분 문양으로 이용되었고 작은 크기로 바탕이나 태두리의 구석에 감춰져서 보여지기도 하며 때로는 바탕의 여기저기에 흩어져서 나타내지는 경우도 있다³⁰⁾. 때로는 이들은 여러 쌍이 서로 대칭적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도 있다(그림 6, 7, 8). 소인표식은 탐가역에도 사용된 문양이나 배열방법에 의해서도 구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란의 동북부, 아프카니스탄 공화국 북서부에 거주하는 유목민 투르크멘부족들에 의해 짜여진 용단은 대부분 팔각형의 문양(코끼리 다리형의 별칭)³¹⁾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주로 짙갈색 바탕에 黑과 白色실로 팔각문양을 짜넣는다.

용단 전문가들은 이러한 tamga나 문양의 특색 및 구도 색상을 보고 그 용단의 제작지, 시대, 민족등을 알아낸다.

4. 실용적 기능

용단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생활의 요구에 의해 사용된 실용성에 있다. 특히 용단의 발상지가 유목, 사막지역인 점으로 볼 때 주로 이동식 가옥의 밑바닥에 필요에 의해 깔았던 깔개류에 장식적, 표식적, 주술적, 미적 요소가 가해져 발

전되어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실내생활의 실용적 필요외에도 앞서 언급된 중앙아시아 깔개에 관한 내용과 같이 고대 사회에서 모제품 깔개류는 세금징수의 수단으로, 또는 通貨의 수단으로 실생활의 유용한 物目 중의 하나였다. 또한 헤단과 스타인의 발굴에 의해 누란(鄯善國)에서 魏晉시대에 설치된 漢人의 屯戍유적지에서 총 526점의 漢文文書를 발견되었는데 이들 문서에는 이 지방에 살았던 漢人병사들과 직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중 헤단문서 Conrady No.22는 겉면에 皮衣, 皮袋, 검은 모직주머니, 흰주머니 각 1개, 布 3枚를 기록하고, 뒷면에는 푸른 거친 모직물(靑絨)1領, 弓(활)1張, 箭(화살)10매³²⁾와 같이 그들이 갖추고 있는 의복과 장비등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보면 앞면에는 주로 의복류에 관계되는 것을, 뒷면에는 장비에 관한 것을 기록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따라서 뒷면의 청색 거친 모직물은 군병사들의 천막깔개로써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대에 있어서 용단의 용도는 주로 군사용으로 야전중 항상 바닥깔개나 장막의 깔개로 사용하여 보온, 방풍의 기능을 했고 이외에도 눈 쌓인 길을 갈때는 마끄럼 방지용으로서도 사용했다³³⁾고 전해지고 있어 漢代이래 서역지역으로 출정한 병사들에게 모직깔개류는 필수장비였던 것 같다.

5. 정서적 욕구표현 기능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꽃과 나무, 그 사이에서 노는 새와 동물, 물고기가 있는 연못, 정원이 있는 풍경등은 그들이 꿈꾸는 낙원일 것이다. 페르시아의 시인들은 낙원에 가고 싶은 소망을 담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읊었고³⁴⁾ 그들의 시는 용단에 그대로 문양으로 나타내졌을 것이다. 특히 유목민의 이동성 주거인 파오의 천장부분은 구멍이 있어 천막에서 바라보는 둥근 하늘의 무한한 별들은 그들에게 생활감정으로 받아들여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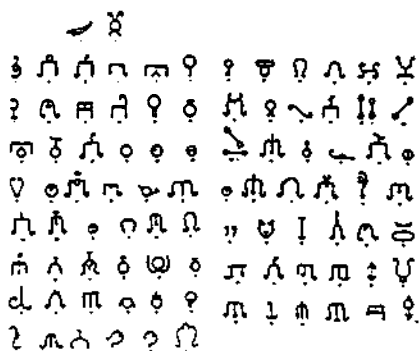
30) Susan Day, "Tales of Totems and Tamghas : The Symbolism of the tribal brand mark and its relationship to carpets", *The Oriental Carpet and Textiles Studies*, Vol. 4, OCTS Ltd, 1993, pp.255-260.

31) 杉山徳太郎, 앞의 책, p.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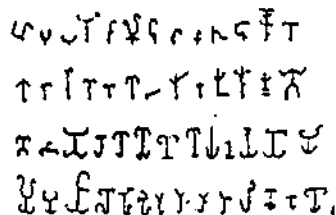
32) 長澤和俊, 樓蘭王國の織物について, 「服裝文化」, No.150, 東京:服裝文化協會, 1976, pp.79.

33) 徐美英, "페르시아와 中國 絨緞의 比較 研究-近世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17.

34) 이남미, "페르시아 사파비朝 絨緞紋樣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p.96.



아나톨리아인의 tamghas



사르마타이인의 tamghas

COMPARATIVE TABLE OF TAMGHAS OF 34 TURCOMAN TRIBES IN MANUSCRIPTS

	Symbol of Old Leyden No.	Ancient Dictionary	Kashgari's Recent Dictionary		Symbol of Old Leyden No.	Recent Dictionary	Kashgari's Recent Dictionary
Sons of Gokan Khan				Sons of Dinkis Khan			
Qut	191	191	191	Jakider	191	191	191
Bayat	192	192	192	Beadir	192	192	192
Kizilavak	193	193	193	Tilveh	193	193	193
Gara-Buk	194	194	194	Ginak	194	194	194
Sons of Ay Khan				Sons of Tok Khan			
Tatur	195	195	195	Salur	195	195	195
Duger	196	196	196	Simur	196	196	196
Dudernak	197	197	197	Siayunklu	197	197	197
Yaperlu	198	198	198	Ushuk	198	198	198
Sons of Taldus-Khan				Sons of Ush Khan			
Usher (Shahar)	199	199	199	Soyundur	199	199	199
Gissa	200	200	200	Shishuk	200	200	200
Shodok	201	201	201	Javuidur (Chuder)	201	201	201
Dergin	202	202	202	Chami	202	202	202

<그림 5> 近東遊牧民들의 Tamghas

(『Oriental Carpet and Textile Studies』, Vol.4. pp. 256-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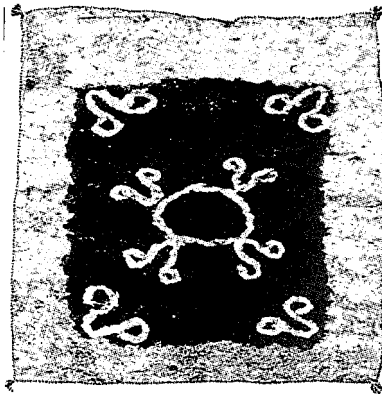
코카서스 카펫이나 터키 카펫에서는 별문양도 자주 눈에 띈다.

색체에 있어서도 붉은 열매를 맺는 석류는 주변에서 화려한 색채를 보기 힘든 서역의 오아시스인들에게 상당히 화려함과 활력을 주었을 것이

며, 따라서 이러한 활력이 석류의 붉은 알갱이로 이어져 다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고대로부터 짚개류에는 붉은색을 비롯한 화려한 색채가 사용되는데 이는 황량한 그들 생활의 정서적 욕구를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문양이 가식된 용단을 깔고



<그림 6> 투르크멘족의 tamgha가 표현된 펠트 깔개
(「中近東遊牧民の染織」,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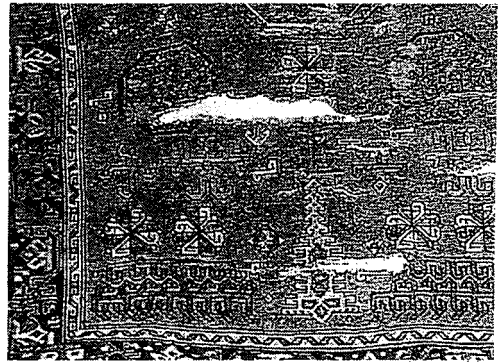


<그림 7> 아프카니스탄 하라자족의 펠트 깔개
(「中近東遊牧民の染織」, p.93)

생활함으로써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6. 문화교류의 단서제공 기능

고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의 모직물과 깔개류의 교류는 유목민들의 활약과 상업의 발달, 교역로 형성, 문화의 東·西漸을 통해 상호 발전해 왔다. 고대로부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림 8> Tamgha가 바탕에 표현된 아나토리아 깔개
(「Oriental Carpet and Textile Studies」 Vol. 4, p. 260)

북쪽 초원지대를 통한 스텝루트는 일명 ‘毛皮의 길’이라 알려질 정도로 오래전부터 많은 유목민에 의해 이용되었던 길이다. 이 지역에서 모제품의 동서교류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지역간에는 유목민족인 셈족과 아람족이,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간의 교류역할자는 흉노와 소그드 상인이, 한편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간에는 알타이계 유목민과 이슬람상인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출토된 유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지역의 자생적 의미를 부여할 수만은 없다. 한 예로 노인우라 출토 유품 중에는 이슬람 문화의 성격을 띤 다수의 유품이 있어 흉노 자신의 손에 의해 제작된 것인지 혹은 지역간의 교류에 의해 이란에서 제작되어 이 지역으로 유입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동서 중개무역을 하였던 소그드(sogd)상인이 직접 백제에 진출했다는 기록과 AD 4~5세기에는 양모로 짠 페르시아 카페트나 깔개 종류가 신라에 소개되었으며 특히 통일신라를 전후하여 중국을 통한 서역문물의 유입과 보급이 활발하였다³⁵⁾는 것으로만 보아도 정확한製作國은 알 수 없더라도 그러한 유품을 통해 당시의 문화교류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

35) 李熙秀, 「한 이슬람교류사」, 서울:문덕사, 1991, pp.77-78.

공받을 수 있다.

V. 결 론

모제품 깔개는 모직물기원 추정 연대인 BC 7000년 혹은 그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을 사육하는 서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유목민을 중심으로 제작, 사용되었다. 제작기법상으로는 사막에서 정주생활을 하는 서아시아를 중심으로 파일직의 깔개류가, 목축 이동생활을 하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을 중심으로는 주로 펠트제의 깔개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고대로부터 사막, 유목지역 민족을 중심으로 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어왔던 모제품 깔개류는 현대생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고대로부터 사용되었던 모제품 깔개는 단순한 깔개이상의 1) 주술성 2) 권력 및 계급표식 3) 소인표식 4) 실용성 5) 정서적 욕구표현 6) 문화교류의 단서제공 기능을 갖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깔개라 하더라도 그것이 갖고 있는 전통성과 기능성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즉 깔개류의 용도에 따른 실용적 기능과 문화교류 단서제공 기능은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보이나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술적 기능과 왕권의 강화를 위한 권력 및 계급표식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주술적 기능외에 소인표식과 정서적 욕구 표현기능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권력 및 계급표식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깔개가 지니고 있는 상징과 기능에 대한 더욱 깊은 연구를 통해 깔개류의 종적, 횡적 계보를 확립함과 아울러 생산, 수출 측면에서 이를 활용한 현대 감각에 맞는 디자인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金富弼, 金鐘權(譯), 「三國史記」, 서울:明文堂, 1988.
- 李熙秀, 「한이슬람교류사」, 서울:문덕사, 1991.
- 齊藤 忠, 孫大俊(譯), 「古代韓國文化와 日本」,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1.
- 徐美英, “페르시아와 中國 絨緞의 比較研究- 近世를 中心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尹良老, “古代 毛織物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남미, “페르시아 사파비朝 絨緞紋樣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辭源」上下冊, 台北:臺灣常務印書館, 中華民國 80.
- 「冊府元龜」, 台北:大化書園, 中華民國73.
- 周保錫, 「中國古代服飾史」, 台北:丹青圖書有限公司, 中華民國75.
- 杉山徳太郎, 「維吾爾絨毯文樣考」, 東京:原流社, 平成3.
- 小笠原小枝, “遊牧民の染織にみる織物の技法と歴史”, 「中近東遊牧民の染織」, 東京:松濤美術館, 昭和60.
- 山邊知行, “아시아의 數物”, 「中近東遊牧民의 染織」, 東京:松濤美術館, 昭和60.
- 角山幸洋, “シルクロードの染織”, 「服裝文化」, Apr. No.150, 東京:服裝文化協會, 1976.
- 加藤定子, “タジクの民族服”, 「服裝文化」.
- 江上波夫, 増田精一.. “西アジア”, 「世界考古學事典」下, 東京:平凡社, 1979.
- 長澤和俊, “樓蘭王國の織物”, 「服裝文化」Apr. No.150, 東京:服裝文化協會, 1976.
- Askarov A.A., “Southern Uzbekistan in Second Millenium B.C.”, 「The Bronze Age Civilization of Central Asia」, New York, 1991.
- Grantzhorn Volkmar, 「The Oriental Carpet」, Germany; Benedikt Taschen, 1991.
- Tomas Hope, 「Costumes of The Greek and Romes」, NY; Dover Pub. INC., 1912.
- Murray Eiland, “Evidence for pile Carpets in Cuneiform Sources and A Note on the Pazyryk Carpet”, 「Oriental Carpet and Textile Studies」, Vol.4, OCTS Ltd, 1993.
- Stronach David, “Patterns of Prestige in the Pazyryk Carpet : Notes on the Representational role of Textiles in the first Millennium B.C.”, 「Oriental Carpet

- and Textile Studies*」, Vol.4, OCTS Ltd, 1993.
- Fujii Hideo, Kazuko Sakamoto, "The Marked Characteristics of the Textiles, Unearthed From the At-tar Carves,Iraq", 「*Oriental Carpet and Textile Studies*」, Vol.4, OCTS Ltd, 1993.
- Susan Day, "Tales of Totems and Tamghas: The Symbolism of the tribal brand mark and its relationship to carpets", 「*Oriental Carpet and Textile Studies*」, Vol. 4, OCTS Ltd, 1993.